

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 배포 2026. 9. 9.(수)

한국수자원공사, '2026 하반기 국가 K-테스트베드' 과제 통합공모

- 9월 9일~10월 6일간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 참여 모집
- 전 산업 분야 중소·벤처기업 대상, 기술·제품 R&D 및 실·검증 지원

한국수자원공사(K-water, 사장 윤석대)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·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국가 K-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국가 K-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(www.ktestbed.net)을 통해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.

재정경제부 주관으로 2021년 출범한 국가 K-테스트베드는 공공·민간 부문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 등 자원을 국내 모든 중소·벤처기업에 개방하여 혁신기술의 실증 및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 초기 45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82개의 공공·민간 기관이 참여 중이다.

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K-테스트베드의 82개 참여기관을 대표하는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, 국가 K-테스트베드 출범 이후 현재까지 82개 참여기관에서 1,627개의 인프라를 개방하고 있다.

국가 K-테스트베드 통합공모는 반기별 연 2회 공모가 진행되며, 이번 모집 분야는 ▲ 연구·개발 ▲ 단순 실증 ▲ 기술 및 제품 성능 확인의 세 가지 분야이다. 통합공모를 통해 과제 선정 시 기술 및 제품의 연구·개발과 자체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기술·개발의 우수성 등 효과 입증도 가능하다.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가 K-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(www.ktestbed.net)을 통해 신청서 제출 및 공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특히, 2024년 7월에 시행된 ‘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’ 개정으로 중소·벤처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다. 국가 K-테스트베드의 기술·제품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에는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평가 시 시범사용 수행역량 평가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, 추후 혁신제품 지정 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최대 6년간 경쟁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다.

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‘2026년 국가 K-테스트베드 제1회 정기 운영위원회’를 개최한 데 이어, 6월에는 기관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 K-테스트베드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“이번 하반기 통합공모는 82개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, 기업의 실증 기회를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공사는 국가 K-테스트베드 총괄 운영기관으로서,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더 많은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붙임 관련 이미지 1매(별첨). 끝.

담당 부서	기후테크혁신처 K-테스트베드부	책임자	부 장	김진석 (042-629-2530)
		담당자	차 장	김경완 (042-629-2531)





참여대상

- 기술·제품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 모든 산업분야 기업
-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'넷제로 챌린지X' 선정기업 우대

지원사항

공공기관 운영시설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제공,
성능확인서 발급 및 후속 판로지원 등

신청방법

K-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
www.ktestbed.net



문의

K-테스트베드 제도 관련 문의

- K-테스트베드 제도 담당자 042-629-2532
- K-테스트베드 운영 담당자 042-629-2536

K-테스트베드 플랫폼 이용 관련 문의

- K-테스트베드 플랫폼 담당자 042-629-2533

공공·민간기관별 실증인프라 현황 및 실증 지원사항 문의

- K-테스트베드 플랫폼 내 참여기관별 담당자

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기관 (82개)

• 공기업(22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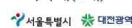
• 준정부기관(29개)



• 기타 공공기관(26개)



• 지자체(2개)



• 지방공기업(2개)



• 민간 단체(1개)

